또다시 타오르는 항쟁의 불길

올해는 남조선에서 6월인민항쟁이 일어난지 36년이 되는 해이다.

6월인민항쟁은 군사파쇼독재와 미국의 식민지정책을 반대하고 사회정치생활의 자주화, 민주화실현을 위한 남조선인민들의 대중적인 반미반파쇼항쟁이였다.

광주의 피바다우에서 권력을 강탈한 전두환군사깡패무리들이 장기집권을 획책하자 분노한 남조선인민들은 들고일어나 《호헌철폐》, 《직선제개헌》, 《독재타도》를 웨치면서 대중적인 항쟁을 벌리였다.

청년학생들이 앞장서고 로동자와 농민, 지식인, 종교인, 재야정계인물들, 중소기업가, 상인, 일반공무원들 지어 전투경찰대원들까지 합세하여 연 500만명이 참가한 대중적인 항쟁은 군사파쇼독재에 심대한 타격을 주고 미국의 식민지통치를 밑뿌리채 뒤흔들어놓았다.

6월인민항쟁은 불의와 파쇼를 절대로 용납치 않으려는 남조선인민들의 굳센 의지와 투쟁기개를 다시금 남김없이 보여주었다. 또한 남조선인민들이 외세와 그와 결탁한 파쇼독재자들의 회유기만에 절대로 속지 말아야 하며 사회의 자주화, 민주화를 철저히 실현할 때까지 반미반파쇼투쟁을 계속 줄기차게 벌려나가야 한다는 심각한 교훈도 남기였다.

6월인민항쟁이 있은 때로부터 많은 세월이 흘렀다. 그러나 자주적이며 민주주의적인 새 정치, 새 생활에 대한 남조선인민들의 념원은 아직도 실현되지 못하였다.

지금 남조선에서는 군사파쇼독재와 다름없는 검찰깡패정치에 의해 사회의 자주화, 민주화를 바라는 인민들의 지향과 요구가 무참히 짓밟히고있다.

윤석열역적패당은 집권후 인민들의 피로 두손을 적신 《유신》독재자를 찬양하고 《전두환이 정치를 잘했다.》는 망언을 늘어놓으면서 6월인민항쟁용사들과 인민들을 모독하고 우롱하였다.

또한 자주정치, 민주정치를 요구하는 인사들과 단체들을 박해하고 탄압하다 못해 초보적인 생존권을 요구하는 로동자, 농민, 시민사회단체들까지 《불법세력》, 《내란세력》으로 몰아 폭압을 가하고있으며 있는 사실을 그대로 전한 언론들에 대해서도 《가짜뉴스의 진원지》라고 하면서 파쇼칼부림을 하고있다. 특히 미국은 물론 천년숙적인 섬나라족속들과도 손잡고 반공화국전쟁대결책동에 미쳐날뛰며 이 땅에 핵전쟁의 불구름을 몰아오고있다.

윤석열역적패당에 의해 남조선에서 식민지파쇼독재체제, 반공화국대결체제는 더욱 강화되고 인민들은 헤아릴수 없는 불행과 고통을 겪고있다.

하기에 6월인민항쟁용사들이 《호헌철폐》, 《독재타도》, 《민주헌법쟁취》, 《군사독재 지지하는 미국물러가라!》의 구호를 들었던것처럼 오늘 남조선 각계층은 《공안탄압, 로조탄압, 초불탄압 막아내자!》, 《검찰독재 윤석열탄핵!》, 《미일의 전쟁돌격대 윤석열퇴진!》, 《퇴진이 평화다!》 등의 구호를 들고 반미, 반독재, 반윤석열투쟁에 떨쳐나서고있다.

남조선을 파쇼의 란무장, 세계최악의 인권불모지, 핵전쟁의 발원지로 전변시킨 윤석열역적패당과 같은 사대매국노, 파쇼독재자, 대결미치광이들의 죄악을 철저히 결산하고 자주적이고 민주주의적인 새 정치, 새 생활을 안아오기 위한 남조선인민들의 정의의 투쟁은 앞으로도 계속될것이다.

김 순 일

죄 많은 자들의 《치적》 타령

요즘 윤석열역적패당이 그 무슨 1년간 《성과》에 대해 광고하고있다.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이라는자는 《특별강연》이라는데서 《안보강화》이니, 《대선지지회복》이니 하고 현 《정부》의 《성과》에 대해 구구히 늘어놓으며 지지률이 낮은 원인에 대해서는 야당을 비롯한 진보세력의 《발목잡기》에 있다고 두덜댔다고 한다.

한편 《대통령실》것들은 인터네트홈페지에 외교《성과》를 부각하는 페지를 신설하는 등 윤석열역도의 1년간 《치적》을 광고해대고있다.

낯가죽이 곰발통같은자들의 역겨운 추태가 아닐수 없다.

집권 1년간 무슨 《성과》가 있다고 그리도 침방울을 튕기며 제 자랑을 늘어놓는가 하는것이다.

1년간 평가는 제스스로 하는것이 아니라 바로 민심이 하는것이다. 지금 남조선민심의 생동한 현장인 거리거리들에서는 어떤 웨침들이 울려나오고있는가.

《윤석열이 재난이다.》, 《윤석열심판!》, 《윤석열퇴진!》, 《윤석열을 몰아내자!》, 《살인자는 권력의 자리에서 물러나라!》…

남조선의 거리거리들에서 터져나오는 이 윤석열타도함성들에 역도의 집권 1년 평가가 고스란히 담겨져있다.

남조선 각계는 왜 성난 목소리로 윤석열퇴진을 웨치고있는것인가.

역도가 집권하여 해놓은것이란 하나에서 열까지 민심에 역행하는것이고 이런자를 그냥 둬두었다가는 남조선인민들이 더 큰 화를 당하게 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 1년간은 남조선인민들에게 있어서 악몽이였다.

검찰에 있을 때 사람잡는 기질밖에 배운것이 없는 윤석열역도는 집권해서 온 남조선땅을 검찰독재의 무시무시한 공포속에 몰아넣었다. 저들의 눈에 조금이라도 거슬리는 세력과 야당들을 모조리 적으로 돌리고 정치보복과 수사의 칼부림을 해대였다. 그런가 하면 친재벌정책을 실시하고 《로동개혁》을 떠벌이며 로동자들의 목을 조이는 로동개악을 하여 분노를 자아내고 《민주로총》을 비롯한 로조들이 다 들고일어나 역도의 퇴진을 요구하게 만들었다.

망둥어 제 새끼 잡아먹듯 근로대중에게는 검찰깡패의 폭군기질을 남김없이 발휘하면서도 외세에게는 한없이 굽신거리며 경제를 통채로 떠넘기고 남조선을 핵전초기지로 섬기면서 전쟁불장난만 일삼아왔다.

나중에는 우리 민족의 천년숙적인 일본의 과거죄악을 무마해주면서 재침의 길잡이, 섬나라의 핵오염수방류를 비호두둔하는 《변호사》노릇까지도 서슴지 않았다.

이렇게 검찰독재가 횡행하고 빈부격차는 하늘땅차이로 벌어지고 전쟁위험이 최대로 높아가는 속에 사람이 죽고 경제가 죽고 미래가 죽어가고 있는것이 남조선의 비참한 현실이다.

이 모든것은 누구의탓이 아니라 정치는 무능하고 경제는 무지하며 외교는 문외한인데다 사대매국은 극성이고 전쟁대결은 광적인 윤석열역도에 의해 빚어진 비참상이며 역도의 《치적》이라고 해야 할것이다.

하기에 남조선민심은 윤석열역도의 1년간 죄악에 대해 《군사독재시대를 련상시키는 1년》, 《민중의 입과 귀를 가리우는 암흑정치의 1년》, 《〈국정〉무능을 남의탓으로 돌려온 뻔뻔스러운 1년》, 《이러다가 전쟁이 일어나지 않겠는가 불안에 떨어온 1년》 등으로 락인하고 규탄하고있는것이다.

무지무능과 반인민적악정, 사대매국과 전쟁책동 등으로 죄악에 죄악만을 덧쌓아온 윤석열역도를 그대로 두고서는 현재도 미래도 없다고 하면서 반미, 반전, 반《정부》투쟁에 떨쳐나선 민심의 목소리에 역도의 죄악에 대한 총평이 있고 판결이 있다.

현실이 이러함에도 그 무슨 《성과》에 대해 운운하고있으니 가소로운 《치적》자랑이 아닐수 없다.

본사기자 한 일 혁

대결광들의 어리석은 《공조》 구걸놀음

최근 윤석열역적패당이 공화국의 자위적억제력강화를 《가장 심각한 도전, 위협》으로 규정하고 이를 《독자적대응능력》과 미일남조선《동맹》강화로 《강력히 억제》하는 한편 《제재와 압박중심》의 《대북정책》을 추진하는것을 기본내용으로 하는 그 무슨 《국가안보전략서》라는것을 발간하였다.

외세를 등에 업고 반공화국압살야망을 기어이 실현해보려는 추악한 망동이 아닐수 없다.

공화국의 자위적억제력은 곧 신성한 존엄과 국토, 인민의 운명을 수호하기 위한 힘이며 조선반도와 민족의 안전과 운명을 담보하는 정의의 보검이다.

항시적으로 미국의 핵위협을 받아왔고 최근 더더욱 로골화되고 강화되는 미일남조선의 군사적결탁과 전쟁위협책동은 공화국이 정의의 힘, 수호의 힘을 갖추고 비약시켜온것이 천만번 옳았다는것을 명백히 실증해주고있다.

조선반도와 민족의 운명을 위해, 세계의 평화를 위해 더욱 위력하게, 누구도 견주지 못하게 다지고 벼리여온 공화국의 가공할 자위적억제력에 대해 미국과 그 추종세력은 전률할뿐이다.

그런데 감히 윤석열역적패당이 가소롭게도 《독자적대응능력》을 떠들고있으니 범무서운줄 모르는 하루강아지의 객기라고밖에 달리 표현할 수 없다.

역적패당이 미국과의 《포괄적전략동맹》구축, 일본과의 《새로운 미래》를 운운하였는데 이것은 남조선을 미일의 2중식민지로 전락시키는것도 모자라 조선반도를 통채로 외세의 롱락물, 식민지로 만들려는 범죄적기도의 산물이다.

조선반도를 집어삼키지 못해 안달아하는 미국과 재침의 칼을 벼리는 섬나라것들과의 군사적결탁으로 공화국과의 전쟁대결을 성문화한것도 모자라 역적패당은 세인의 지탄을 받아 넝마짝이 된 《담대한 구상》이라는 《대북정책》을 또다시 내흔들며 반공화국모략기도도 드러냈다.

보는바와 같이 윤석열역적패당의 이른바 《국가안보전략서》라는것은 외세의 힘을 빌어 공화국과 끝까지 대결해보려는 극악한 전쟁각본, 대결각본이며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 새로운 전쟁을 망상하는 미일상전에게 남조선을 침략적인 핵전쟁전초기지, 병참기지로 완전히 섬겨바치려는 추악한 전쟁하수인의 매국문서이다.

하기에 남조선 각계층도 역적패당이 발간한 《국가안보전략서》에 대해 《대결에 방점을 둔 전략서》, 《굴욕으로 일관된 외교안보문서》, 《대국의 리익을 우선시하는 전략》 등으로 강력히 규탄하고있는것이다.

자주와 평화를 지향하는 시대의 흐름과 민족의 념원, 민심에 역행하는자들에게 차례질것은 오직 수치와 파멸뿐이다.

장 수 국

추악한 전쟁하수인의 전쟁각본, 대결각본

《닭그네》의 전철을 밟아가는 《윤재앙》

지금 남조선에서는 윤석열역도를 퇴진시키기 위한 투쟁에 남녀로소가 떨쳐나서고있다.

정치인, 사무원, 로동자, 농민, 종교인, 청년학생 등 남조선 각계층이 전역에서 웨치는 《윤석열퇴진!》, 《윤석열역도는 물러가라!》, 《매국노 윤석열을 몰아내자!》의 함성은 날이 갈수록 그 진폭이 거세여진다.

어찌 보면 수년전 박근혜역도를 탄핵하던 때를 방불케 한다.

이에 대해 남조선의 한 정치평론가는 지금 벌어지고있는 사태는 박근혜가 권력의 자리에서 쫓겨날 때와 류사한 상황이다, 이제 윤석열이 갈길은 박근혜가 간 길밖에 없다고 분석하였다.

《윤석열정권 조기붕괴의 조짐이 보인다.》는 민심의 평에 박근혜역도의 전철을 따라가는 윤석열역도의 종말이 비껴있다.

《바지입은 박근혜》

같은 종자끼리는 서로 통하는데가 있기마련이다.

박근혜역도와 윤석열역도의 권력행적에서 비슷한 점이 많은것도 그래서인지 모른다.

시작부터가 닮았다.

박근혜역도는 불과 3.6%의 차이로 당선되였고 윤석열역도는 그보다 더 막연한 0.73%정도의 차이로 간신히 권력의 자리에 올랐다.

박근혜역도는 《유신》애비의 후광으로, 윤석열역도는 《정권교체》에 혈안이 된 《유신》후예들에 의해 등을 떠밀리워서…

그래서인지 박근혜를 《어쩌다 당선된 그네》로 야유했던 남조선민심은 윤석열역도에 대해서는 《얼결에 〈대통령〉벙거지를 뒤집어쓴 꼭두각시》라고 조소하였다.

철저한 미신쟁이라는 점에서 서로가 짝지지 않는다.

박근혜역도는 최태민과 그의 딸 최순실에 의해 체계적으로, 대를 이어오며 《세뇌》되고 지배된 미신쟁이이라면 윤석열역도는 미신광인 녀편네에게서 《령》적인 《세뇌교육》을 받은것은 물론이고 《건진법사》, 《천공스승》의 《조언》을 《무조건》적으로 받아무는 미신쟁이이다.

윤석열의 미신추태는 《대통령》선거당시 손바닥에 《王》자를 새기고 대중앞에 나섰을 때 처음으로 공개되였고 《대통령》사무실을 청와대에서 옮길 때 극명하게 드러났다.

둘 다 지능지수가 형편없다는것 역시 빼놓을수 없는 점이다.

《준비된 녀성대통령》이라던 박근혜역도는 대중앞에 나서면 할 말도 제대로 찾지 못해 《어버버》, 귀띔해준 말을 적어놓은 수첩이 없으면 일언반구도 번지지 못해 《수첩공주》, 머리속에 든 단어가 백개정도뿐이여서 《닭그네》, 《백마디공주》라는 별명으로 통하였다.

윤석열역도는 눈길조차 건사 못해 《도리도리윤》, 《윤도리탕》으로, 《주 120시간로동제》, 《손로동은 아프리카에서나》, 《돈없는 사람은 불량식품이라도》와 같이 동에 닿지 않는 소리를 하여 《1일1망언후보》로, 오만방자하게 놀아대는 녀편네의 행실에 대한 기자의 질문에 《대통령을 처음 해봐서…》와 같은 부실한 대답을 하여 《무지몽매한 인간》 등으로 통칭되였다.

보는바와 같이 정신적, 심리적면에서 박근혜역도를 그대로 빼물은 윤석열역도여서 사람들은 《바지입은 박근혜》, 《남자 박근혜》라고 야유하였다.

이런 윤석열역도가 박근혜역도의 전철을 따라가는것은 어찌보면 자연스러운것이 아니겠는가.

파쇼와 전쟁광기를 부리는 독재광

윤석열역도가 당선되여 제일먼저 찾아간것은 박근혜역도였으며 만나서는 《늘 죄송했다.》, 《명예를 회복시켜주겠다.》고 머리를 조아렸다는 사실은 이미 알려져있다.

무엇이 《죄송》했고 어떤 《명예》를 《회복》시켜준다는것이였겠는가.

박근혜역도에게 쇠고랑을 채웠던것이 《죄송》한것이라면 희대의 《국정롱단》으로 남조선을 암흑세계로 만들었던 박근혜를 끌어내린 초불투쟁이 《잘못》된것이라는 수작이고 《명예회복》은 곧 박근혜가 이루지 못한 《유신》독재부활의 망상을 자기가 실현하겠다는 《맹약》으로 보아야 할것이다.

실제로 윤석열역도는 박근혜역도를 릉가하는, 《유신》독재에 짝지지 않는 파쇼독재의 추악한 자취를 이어왔다.

전례없는 《검찰공화국》을 만들어놓고 검찰독재의 칼바람을 일으킨 윤석열역도에 의해 남조선에서는 반대파세력에 대한 정치보복이 횡행하고 초보적인 생존권을 요구한 《민주로총》과 같은 로동계는 《내란세력》, 《종북세력》으로 락인되여 무지한 파쇼폭압의 대상으로 되고있다.

민생을 살리라, 농민을 죽이지 말라, 《로동개악》, 《교육개악》을 반대한다고 토로하며 각계층이 초불을 들었건만 그들도 《불법폭력세력》으로 몰리우고 이를 보도한 언론들은 《가짜뉴스 진원지》로 매도되고있지 않는가.

미국과는 덮어놓고 《동맹》강화를 고아대며 정치이고 경제이고 군사이고 달라는대로 다 주며 섬기고있다.

섬나라것들과도 《미래》를 운운하며 과거의 피비린 죄과도 덮어주고 천년숙적의 재침야망에도 박수를 쳐주고 길을 내여주며 과거의 식민지시절에로 력사의 시계를 거꾸로 돌리고있다.

외세에게는 그렇게도 극성이지만 공화국을 향해서는 망언, 폭언에 광란적인 전쟁망동을 부리며 지랄발광이다.

윤석열역도가 지난 1년간 외세와 결탁하여 강행한 반공화국전쟁연습과 전쟁모의들은 력대 집권자들의 북침전쟁책동규모를 훨씬 릉가한다.

윤석열역도가 몰아온 파쇼광풍의 회오리속에 남조선에는 박근혜역도때보다 더한 암흑시대가 도래하였다.

박근혜역도가 남조선을 행각한 미국대통령앞에서 숙제 검열받는 학생처럼 머리를 굽석이며 비굴하게 놀아대였다면 윤석열역도는 그보다 훨씬 더 비굴하게 미국과 일본의 바지가랭이를 부여잡고 굴종의 최고기록을 세우고있다.

역도를 불태우는 오늘의 초불바다

무지무능한 《닭그네》는 결국 임기도 다 못채우고 《탄핵》의 초불바다에 타버리고말았다.

박근혜를 닮고 박근혜를 따라가던 윤석열역도도 지금 퇴진의 거세찬 함성에 직면해있다.

그것도 집권해서 이제 겨우 1년밖에 안되였는데 남조선의 각계로부터 규탄배격을 받고 퇴진압력을 받으며 《조기붕괴》의 벼랑끝에 서있으니 박근혜보다 더 비참한 신세가 아닐수 없다.

남조선전역에서 벌어지고있는 반윤석열투쟁의 형태와 양상을 보면 박근혜탄핵시기와 비슷하다.

정당, 사회단체, 로동단체, 종교단체들의 시국선언과 각이한 계층이 참가하는 초불집회, 시위투쟁, 성토모임…

민심이 추켜든 반윤석열투쟁 구호도 《퇴진》에서 《타도》로 그 강도가 더 세지였다.

남조선 각계는 박정희, 전두환, 로태우역도를 파멸시킨 지난 시기의 인민봉기, 항쟁들을 재현하여 보수《정권》을 타도하겠다고 하면서 투쟁형식도 《운동》에서 《항쟁》으로 전환하였다.

그런 속에 박근혜탄핵시기처럼 풍자문화도 번성하고있다.

《대통령》후보랍시고 거들먹거릴 때부터 역도와 그 일가족속들의 부정부패와 《정책공약》, 동족대결망발을 신랄하게 풍자하는 동영상편집물과 그림, 사진들이 인터네트에 대대적으로 게재되였다.

권력을 가로타고앉은 후에는 《술통령》의 본색을 풍자하는 《투표로 음주문화 확실히 개선합시다》라는 대형구호막이 서울의 광화문광장과 종로구일대에 게시되는가 하면 《윤석열을 심판하자》는 만평이 인터네트에 실리기도 하였다.

민심은 천심이라고 남조선 각계층의 분노와 풍자조소의 대상이 되여 퇴진, 심판, 파멸의 규탄을 받고있는 가련한 윤석열역도이다.

이 모든것은 희대의 정치무능아, 추악한 사대매국노, 천하의 대결광인 《윤재앙》이 제스스로 초래한것이다.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기마련이다. 하물며 죄도 용서받을 수 없는 특대형 죄만을 가득 지은 윤석열역도이고보면 그 앞날이 어떻게 되리라는것은 너무도 명명백백한 사실이다.

본사기자 김 정 혁